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이달 정기분 주민세 8억5000만원 고지

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억5,000만원을 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1세대 단위)이다.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만8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사업소 운영자에게 5만5,000원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법인 균등분은 정읍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납부 방법은 8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회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씨 없는 수박 출시

##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소비자 호평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마트 전주점에 '고창 씨 없는 수박'의 출시를 알리며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출시전은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 군의원, 이마트 점장, 부안마켓팅 대표, 고창스테비아수박연구회 김재주 회장 등과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씨 없는 수박' 시식과 홍보행사를 가졌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시식행사에서는 더위를 잊는 달달하고 아삭한 씨 없는 고창수박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출시전에서 선보인 고창 씨 없는 수박은 부안마켓팅을 통해 전국 이

마트에서 동시 판매한다.

한편 고창 수박은 미네랄과 원적의 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를 하며, 국내 최초로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서 청정 고창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올해 2018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돼 9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고창 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창군에서는 성내면을 중심으로 52농가가 25.7ha에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일반 수박은 씨가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남은 것이 과육에 축적되지만, 씨 없는 수박은 과육으로만 영양분이 축적되므로 일반 수박보다 맛과 당도

가 높다. 또한 씨가 없어 먹기에도 훨씬 편한 장점이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천하제일강산 고창군은 깨끗한 자연에서 농민들의 우수한 재배기술과 함께 농촌개발대학에서 수박멜론과 함께 농촌개발대학에서 수박멜론과 함께 각종 시범사업과 교육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출시전을 통해 고창 씨 없는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유통업체와의 교류로 수박의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으로 씨 없는 수박의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농협이 지난 10일 부안 농협 관내 영농회에 자동펌프 1대씩을 전달하여 가뭄을 극복하려고 애쓰시는 농업인을 위로했다.

## '농민'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다

### 부안농협, 관내 영농회에 자동펌프 전달

실질적인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지 부안 농협 관내 영농회에 자동펌프를 전달, 농민을 위한 농협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안 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10일 부안 농협 관내 부안읍, 동진면, 백산면, 주산면 영농회(4,200만 원·상당)에 자동펌프 1대씩을 전달하여 가뭄을 극복하려고 애쓰시는 농업인을 위로했다.

연일 계속 되는 극심한 폭염과 함께 가뭄현상이 발생한 논과 밭의 영농현장을 살펴보면서 김원철 조합장은 "뭣지리 할 때부터 갖은 고

생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자식처럼 가만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가뭄극복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자동펌프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 이루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안 농협은 벼 백수 피해, 하우스피해, 폭설피해, 줄무늬얼마 림병피해농가지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지원 등 농업인들과 자연재해의 이쁨을 함께 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시, 신태인파출소 사거리에 대기오염 전광판 추가 설치

### 대기정보 신속 전파

### 환경보전 시민의식 고취

정읍시는 최근 북부권역인 신태인읍에 위치한 신태인파출소 사거리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정읍지역 대기오염 전광판은 기존 남부권역(연지동)을 포함 2개로 늘어났다.

전광판은 과 북부권역(신태인읍)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로부터 상

시 측정된 오존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6개 항목의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를 표출한다.

또 미세먼지 등 예보·경보 발령 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 결과 홍보를 통해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국발 황사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

들의 건강과 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광판을 추가 설치, 대기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정보 상황은 환경부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북대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문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고부문화권 보존사업회 관청리 놀제서 기우제 올려

정읍시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회장 김호근)는 지난 9일 고부면 관청리 놀제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이 자리에는 정읍시의회 최낙산 의장을 비롯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호근 회장이 초헌관을 맡은 이날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 시원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고부문화권보존사업 관계자는 "기우제는 형식적 의미의 재현 연출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면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친신께 비를 내려줄 것을 빌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우제가 열린 놀제는 삼한(마한) 시대에 축조됐다.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더불어 3호(湖)라 일컬어진다. 일대 도작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매년 추수절을 앞두고 풍년제가 진행되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립도서관, 초등생 대상 여름독서교실 성료

정읍시립도서관이 운영한 초등생 독서교실이 마무리됐다.

이번 독서교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에서 운영했다.

중앙도서관은 '책으로 읽는 조선시대'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운영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 영·정조 시대 등 조선 후기 역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장안문 등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신태인도서관은 조선의 세도정치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을 교육했다. 더불어 사발발문 만들기 등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은 독서교실 참여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 시상도 했다.

시장상 수상자는 ▲이서정(내장초2) ▲김신우(내장초 3) ▲최정엽(한솔초 3) ▲문세현(신태인초 6) ▲이서우(내장초 4) ▲조서영(한솔초4) ▲조석원(한솔초 5). 국립어린이청소년관장은 ▲장준(한솔초 3) ▲주시은(신태



정읍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책으로 읽는 조선시대'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초등생독서교실을 운영했다.

## 고창군, 다동이 가족위한 쌀가공 제품 실습 실시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고창군에 거주하는 3차녀 이상 다동이 가족을 대상으로 쌀가공 제품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시연·실습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고창 대표 식품인 복분자의 기능성 및 쌀가공 제품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쌀가루를 이용한 쌀케익 만들기 실습 순서로 진행했다.

쌀케익 만들기 실습은 쌀가루를 이용하여 케익 시트를 제조한 후 생크림, 복분자 및 각종 과일을 이용하여 쌀케익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색이 나는 쌀가루 반죽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장식을 만들어 창의력을 높이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나만의 쌀케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밀가루 알러지가 알려지면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연구소는 쌀가루 가공 연구를 진행해왔고 결과물 중 하나인 쌀케익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밖에도 연구소에서는 진로체험교육 및 가공제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체험교육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복분자와 각종 베리류의 성분,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원을 이해하고, 가공제품교육은 복분자의 성장과정과 특성을 학습하고 복분자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관계자는 "쌀을 이용한 가공교육으로 고창의 쌀과 복분자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증가시켜 고창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연구소를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뼉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열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뽕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